

關東別曲



[해제]

조선 시대 중기 정철(鄭澈 : 1536~1593)이 지은 가사 작품이다. 금강산을 비롯한 관동 지역의 산수를 두루 돌아보며 느낀 감흥과 포부를 엮는 기행가사이다. 음수율은 3·4조 위주이며, 4·4조나 2·4조 등 다른 율조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작품의 길이는 이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성주본 "송강가사(松江歌辭)"의 경우를 들면 전체 145행 291구로 되어 있다. 정철의 가사 중 가장 긴 작품이다. 이 가사는 "江江湖호에病병이김퍼竹죽林林的의누엇"으로 시작하는 가사이다.

[원문]

關東別曲

關關東동別別曲곡

江江湖호에 病병이김퍼 竹죽林林的의 누엇더니
關關東동 八팔百백리리에 方방面면을 맞디시니
어와 聖성恩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하다
延연秋추門문 도리드라 慶경會회南남門문 바라보며
下하直직고 을디나니 玉옥節절이 입피섯다
平평丘丘구驛역 물을그라 黑흑水수로 도라드니
蟾섬江강은 어디메오 雉티岳岳은 여기로다
昭소陽양江강 느린물이 어드러로 든단말고
孤고臣신去거國國에 白백髮발도 하도할샤
東동州州쥬밤 계오새와 北북寬寬관亭亭의 올라흐니
三삼角각山山 第데一일峯봉이 흐마면 뇌리로다
弓궁王왕 大대闕闊터희 烏오雀雀작이 지지괴니
千천古古고 興흥亡망을 아는다 몰으는다
淮회陽양 네일흠이 마초아 그툴시고
汲汲長長당孺유 風풍彩彩치를 고터아니 볼거이고
營營中中등이 無無事事스르고 時時節절이 三三月월인제
花화川川천 시내길히 풍岳岳으로 버터잇다
行행裝裝장을 다썰치고 石石徑徑경의 막대디퍼
百百씩川川천洞洞동 거티두고 萬萬만瀑瀑폭洞洞동 드러가니
銀은그튼 무지게 玉옥그튼 龍龍龍의초리
섯돌며 썸느소리 十十십리리에 쯤자시니
들을제논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金金剛강臺臺디 仁仁우層층의 仙仙仙鶴鶴학이 샷기치니
春春春風風풍 玉玉옥笛笛덕聲聲의 첫음을 썩뚫던디
縞縞호衣의 玄玄현裳裳상이 半半반空空의 소소스니
西西서湖湖호 衿衿主主主人인을 반겨셔 넘노는듯
小小小香香爐爐노 大대香香爐爐노 눈아래 구버보며

正正陽양寺스 眞眞歇혈臺디 고타올나 안존말이
 녀山산 眞眞面면目목이 여기야 다보는다
 어와 造造化화翁翁이 현스토 현스홀샤
 놀거든 쉼디마나 셋거든 솟디마나
 芙부蓉蓉을 소жат는듯 白백玉玉을 못것는듯
 東동溟명을 박촉는듯 北북極극을 괴왓는듯
 呑呑시고 望望高高臺디 의로올샤 穴혈望望峰봉
 하늘의 추미러 므스일을 스로리라
 千천萬萬劫劫 디나도록 구필줄 모르는다
 어와 너여이고 너기튼니 쏘잇는가
 開開心心臺디 고타올나 衆衆香香城성 바라보며
 萬萬二이千千 峯봉을 歷歷歷歷히 헤여하니
 봉마다 므쳐잇고 곳마다 서린기운
 傭거든 조치마나 조커든 몹지마나
 저기운 흐터내야 人인傑걸을 문들고자
 形形容용도 그지업고 體體勢세도 하도할샤
 天천地地 삼기실제 自自然然이 되연마는
 이제와 보게되니 有有情정도 有有情정홀샤
 毗毗盧로峯봉 上上上上頭두의 올라보니 괴늬신고
 東山산 泰태山산이 어늬야 呑呑던고
 魯魯國國 조븐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넙거나 넙은天천下하 엇찌하야 적닷말고
 오르디 못하거니 느려가미 고이하랴
 圓圓通通골 3는길로 獅獅子峯봉을 초자가니
 그왓픽 너러바회 火火龍龍쇠 되여세라
 千年年老노龍龍이 구빅구빅 서려이서
 晝晝夜야의 흘녀내여 滄창海海히에 니어시니
 風風雲운을 언제어더 三三日日雨우를 디련는다
 陰陰崖애에 이온풀을 다살와 내여스라
 摩摩訶아衍衍 妙묘吉길祥상 안문재 너머디여
 외나모 뼈근드리 佛佛頂頂臺臺디에 올라하니
 千천尋尋심 絶絶壁벽을 半半空공애 세여두고
 銀銀河河水水 汗汗구빅를 촌촌이 버혀내여
 실기티 플터이서 뵈기티 거러시니
 圖圖經經 열두구빅 내보매는 여러히라
 李李謫謫仙仙이 이제이서 고타의논 하게되면
 녀山산이 여기도곤 낫단말 못하러니
 山山中등을 므양보라 東동海海히로 가자스라

籃輿緩步보하야 산映영樓누의 올라하니
 玲瓏龍碧溪계와 數水聲성啼啼鳥도는 離離別別을 怨怨하느듯
 旌旗旗를 썰티니 五五色식이 넘노느듯
 鼓角각을 섯브니 海雲운이 다것느듯
 鳴鳴沙사길 니근물이 醉취仙仙을 빗기시러
 바다를 것티두고 海棠棠花화로 드러가니
 白鷗鷗구야 누디마라 네벗인줄 엇디아는
 金金欄欄窟窟 도라드러 叢叢石석亭亭의 올라하니
 白玉玉樓樓누 남은기동 다만네히 셔잇고야
 工工僮僮의 성녕인가 鬼鬼斧부로 다드문가
 구텨야 六六面면은 무어슬 象象뿔던고
 高高城城을란 더만두고 三三日日浦浦를 초자가니
 丹丹書書는 宛宛然然하되 四四仙仙은 어디가니
 예사흘 머은後후의 어디가 쏘머은고
 仙仙遊遊潭潭 永永郎郎湖湖 거기나 가잇는가
 淸淸澗澗亭亭 萬萬景景臺臺 멧고디 안뎡던고
 梨梨花화는 불셔디고 接接東東 슬피울제
 洛洛山山 東東畔畔으로 義義相相臺臺에 올라안자
 日日出出을 보리라 夜夜만 니러하니
 祥祥雲雲이 집피는동 六六龍龍이 바되느듯
 바다히 쉼날제는 萬萬國國이 일위더니
 天天中中의 淸淸쓰니 毫毫髮髮을 헤리로다
 아마도 崑崑崑이 근쳐의 머을세라
 詩詩仙仙은 어디가고 咳咳唾唾만 나맛느니
 天天地地間間 壯壯雄雄의 別別 조셔히도 흘셔이고
 斜斜陽陽 峴峴山山의 躑躑躑躑을 므니볼와
 羽羽蓋蓋 芝芝輪輪이 鏡鏡浦浦로 누려가니
 十十里里 氷氷紈紈을 다리고 고터다려
 長長松松 울흔소개 슬크장 퍼더시니
 을걸도 자도잘샤 모래를 헤리로다
 孤孤舟舟 解解纜纜하야 亭亭子子조우히 올라가니
 江江門門橋橋 너은거티 大大洋洋이 거기로다
 洞洞容容하느다 이氣氣像像 澗澗遠遠하느다 더境境界계
 이도곤 古古진되 쏘어되 잇닷말고
 紅紅粧粧 古古事事를 현스타 흐리로다
 江江陵陵 大大都都護護 風風俗俗이 岫岫하고
 節節孝孝 旌旌門門이 골골이 버러시니
 比比屋屋 可可封封이 이제도 잇다홀다

珍珠齋館 竹嶺西樓 吳十山川 全 모든물이
 太태白백山산 그림재를 東동海히로 다마가니
 출하리 漢한江강의 木목覓먹의 다히고저
 王왕程덩이 有유限한하고 風풍景경이 못슬의니
 幽유懷회도 하도할사 客객愁슈도 돌디업다
 仙선槎자를 씌워내어 斗두牛우로 向향하살가
 仙선人인을 초조려 丹단穴혈의 머므살가
 天텨根근을 못내보와 望망洋양亭亭의 올은말이
 바다맞근 하늘이니 하늘맞근 으어신고
 又득 怒노흔고래 杼라셔 놀내관대
 불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銀은山산을 것거내어 六육습합의 느리는듯
 五오月월 長당天텨의 白백雪설은 므스일고
 저근덧 밤이드러 風풍浪浪이 定덩하거늘
 扶부桑상 咫지尺척의 明明月월을 기다리니
 瑞서光광 千천丈丈이 뵈는듯 肅눈고야
 珠珠簾렴을 고터것고 玉옥階계를 다시슬며
 啓계明明星성 듯도록 窅초안자 바라보니
 白백蓮년花화 淸가지를 杼라셔 보내신고
 일이요흔 世세계계 喆대되 다뵈고저
 流流霞하酒주 又득부어 돌드려 무론말이
 英英雄웅은 어디가며 四스仙선은 괴뉘러니
 아모나 만나보아 杼라셔 못자하니
 仙선山산 東동海히에 갈길도 머도말사
 松송根근을 베어누어 杼를 얼끗드니
 杼애 淸사람이 날드려 淸은말이
 그딴을 내모르랴 上상界계에 眞진仙선이러
 黃황庭덩經경 一일字자를 엇디그릇 杼거두고
 人人間간의 내터와셔 杼를 쏘오는다
 저근덧 가디마오 淸술한잔 杼어보오
 北북斗두星성 기우려 滄창海히水슈 부어내어
 여저먹고 날먹여늘 서디잔 杼후로니
 淸和風풍이 杼습杼습하야 兩兩腋익을 추혀들어
 九구萬만리 長당空공에 저기면 놀리로다
 淸술 가져다가 四스海히에 杼로노화
 億億萬만 蒼창生싱을 다醉취케 杼근後의
 그제야 고터민나 杼한잔 杼찾고야
 말디자 鶴학을 杼고 九구空공의 올나가니

空空中 등 玉簫韶 소리 어제런가그제런가
나도 증을씩여 바다를 구버보니
기피를 모르거니 人들 엇디알리
明明月월이 千천山山萬萬落낙의 아니비천 뒤업다

[현대역]

關東別曲

관동별곡

강호1에 병이 깊어 죽림2(竹林)에 누웠더니
관동3 팔백리에 방백4을 맡기시니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망극하다
연추문5(延秋門) 달려들어 경회루 남문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6(玉節)이 앞에섰다
평구역7 말을 갈아 흑수8로 돌아드니
섬강9은 어디멘고 치악산10이 여기로다
소양강11 내린 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가
외로운 신하 떠나는 길에 백발도 많고 많다
동주12 밤 겨우 새고 북관정13에 올라가니
삼각산14 제일봉이 하마 거의 보일러라
궁예왕 대궐 터에 까막까치 지저귀니
천고의 흥망을 아는지 모르는지
회양15의 옛 이름이 우연히도 같을시고
급장유16(汲長孺) 풍채를 다시 아니 볼 것인가
감영 안이 무사하고 시절이 삼월인 제
화천 시냇길이 풍악17으로 뻗어 있다
행장을 다 떨치고 돌길에 막대 짚어
백천동18 옆에 두고 만폭동19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섞여 돌며 뿜는 소리 십 리에 자자하니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볼 제는 눈이로다
금강대20 맨 위층에 선학이 새끼 치니
봄바람 옥피리에 첫잠을 깨었던지
회고 검은 모습으로 공중에 솟아 뜨니
서호의 옛 주인21을 반겨서 넘노는 듯
소향로 대향로22 눈 아래 굽어보며
정양사23 진혈대24에 다시 올라 앉아보니
여산의 진면목25이 여기서 다 보이네
어와 조화옹이 야단스럽고 야단스러워라
날거든 뛰지나 말고 섰거든 솟지나 말지
연꽃을 꽃은 듯 백옥을 묶은 듯
동해를 박차는 듯 북극을 괴어 논 듯

높도다 망고대26 의롭도다 혈망봉27이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사뢰려고
 천만 겁이 지나도록 급힐 줄 모르는가
 어와 너로구나 너 같은 이 또 있는가
 개심대28에 다시 올라 중향성29 바라보며
 일만 이천 봉30을 역력히 헤아리니
 봉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좋지 말고 좋거든 맑지 말지
 저 기운 흩어내어 인걸을 만들고자
 모습도 그지없고 형세도 많고 많다
 천지가 생겨날 제 저절로 되었건만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하다
 비로봉 상상봉에 올라 본 이 그 누군가
 동산 태산31이 어느 것이 높다던고
 노나라32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천하33 어찌하여 작단 말인가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이상하랴
 원통골34 좁은 길로 사자봉35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너럭바위 화룡소가 되었구나
 천년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야로 흘러내려 창해에 이었으니
 풍운을 언제 얻어 삼일우(三日雨)를 내릴건가
 그늘에 시든 풀을 다 살려 내려무나
 마하연 36묘길상37 안문재38 넘어 들어
 외나무 썩은 다리 불정대39에 올라가니
 천길의 절벽을 공중에 세워 두고
 은하수 한 굽이를 마디마디 베어 내어
 실같이 풀어서 베같이 걸었으니
 그림 같은 열 두 굽이 내 보기엔 여럿이라
 이적선(李謫仙)이 이제 있어 다시 의논 하게 되면
 여산40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 하리라
 산중을 매양 보라 동해로 가자구나
 남여(藍輿)로 완보하여 산영루41에 올라보니
 영롱한 시냇물 우짖는 새 소리 이별을 원망한 듯
 깃발을 휘날리니 오색이 넘노는 듯
 북과 피리 섞어 부니 바다 구름 다 걷힌 듯
 평사42길 익은 말이 취한 신선 빗기 실어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백구야 날지 마라 네 벗인 줄 어찌 아나
 금란굴43 돌아들어 총석정44에 올라가니
 백옥루45 남은 기둥 다만 넷이 서 있구나
 명장의 솜씨인가 귀신 도끼 다듬었나
 구태여 여섯 면46은 무엇을 본뒀는가
 고성일랑 저기 두고 삼일포47를 찾아가니
 붉은 글씨48 완전한데 사선(四仙49)은 어딜 갔나
 여기 사흘 머문 후에 어디 가서 또 묵었나
 선유담50 영랑호51 거기에 나가 있는가
 청간정52 만경대53 몇 곳에 앉았던가
 이화는 벌써 지고 접동새 슬피 울제
 낙산(落山)54의 동쪽으로 의상대55에 올라 앉아
 일출을 보리라 밤중에 일어나니
 구름이 퍼오른 듯 여섯 용이 받치는 듯
 바다를 떠날 제는 온 세상이 일렁이더니
 하늘에 치솟으니 터럭을 헤리로다
 아마도 가는 구름56 근처에 머물세라
 시선(詩仙)57은 어디 가고 시구58만 남았는가
 천지간 장한 기별59 자세히도 읊조렸네
 석양에 현산60의 철쭉을 밟아 가며
 수레에 의지하여 경포61로 내려가니
 십 리에 비단을 다리고 다시 다려
 울창한 솔밭 속에 싫도록 펼쳤으니
 물결도 잔잔하여 모래를 헤리로다
 외로운 배를 띄워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62 남은 곁에 대양이 거기로다
 조용하다 이 기상 활달하다 저 경계
 이보다 갓춘 곳이 또 어디 있으려고
 흥장63의 옛 일을 요란하다 할 것이라
 강릉 대도호부 풍속이 좋을시고
 절효(節孝)의 정문(旌門)이 마을마다 널렸으니
 비옥(比屋) 가봉(可封)64이 지금도 있다 하리
 진주관65 죽서루66 오십천67 흐른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 가니
 차라리 한강의 목멱68에 달게 하리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못내 좋아
 회포도 많거니와 객수도 돌 데 없다
 뗏목을 띄워내어 두우(斗牛)로 향해 볼까

선인을 찾으러 단혈(丹蘂)에 가 머무를까
 하늘 끝을 못내 보아 망양정69에 몰라보니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는 밖은 무엇인고
 가뜩이나 성난 고래70 그 누가 놀라게 해
 불거니 뽀거니 어지럽게 구는구나
 은산(銀山)을 꺾어내여 온 세상에 내리는 듯
 오월의 하늘에 백설은 무슨 일인가
 어느새 밤이 들어 풍량이 잠들거늘
 부상(扶桑)71 지척에서 명월을 기다리니
 천 길 서광이 보이는 듯 숨는구나
 주령을 다시 걷고 옥 층계를 다시 쓸며
 샛별72이 돋도록 곧게 앉아 바라보니
 흰 연꽃73 한 송이를 그 누구가 보냈는고
 이렇게 좋은 세계 남에게 다 보이고자
 유하주74(流霞酒) 가뜩 부어 달에게 물은 말이
 영웅은 어디 가며 사선은 그 누구고
 아무나 만나 보아 옛 기별 묻자 하니
 선산(仙山) 동해에 갈 길도 멀고 멀다
 술뿌리 베고 누워 풋잠을 얼핏 드니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른 말이
 그딴것대를 내 모르랴 하늘의 진선(眞仙)이라
 황정경75(黃庭經)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 두고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잠깐만 가지 마오 이 술 한 잔 먹어 보오
 북두성 기울여 창해수 부어 내어
 저 먹고 날 먹이거늘 서너 잔 기울이니
 산들바람 솔솔 불어 두 어깨 추켜들고
 구만리 창공을 웬만하면 날겠구나
 이 술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고루 나눠
 억만 창생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제야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꾸나
 말 그치자 학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니
 공중 통소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거니 가인들 어찌 알리
 명월이 천산 만락76에 아니 비친 데 없다

[각주]

- 1) 강호(江湖)에 병이 깊어 : 강호 즉 자연을 사랑하는 정이 병이 날 만큼 깊어. 천석고황(泉石膏肓).
- 2) 죽림(竹林) : 대나무의 고장 담양 창평.
- 3) 관동(關東) : 대관령 동쪽. 강원도 지방의 총칭.
- 4) 방면(方面) : 방면지임(方面之任)의 준말. 관찰사의 소임.
- 5) 연추문(延秋門) : 경복궁 서쪽에 있던 문. 연추문(延秋門).
- 6) 옥절(玉節) : 왕이 관찰사를 상징하는 신표(信標)로 주던 패. 관원이 출발할 때 기표(旗標)로 앞에 세웠음.
- 7) 평구역(平丘驛) : 경기도 양주 동쪽에 있었던 춘천과 원주로 갈리어 가는 길목의 역.
- 8) 흑수(黑水) : 경기도 여주 북쪽을 흐르는 한강 상류의 하나인 여강의 옛이름.
- 9) 성강(蟾江) : 원주 서남쪽에 있는 한강 상류.
- 10) 치악(稚岳) : 원주 동쪽에 있는 산. 치악산.
- 11) 소양강(昭陽江) : 춘천에 있는 북한강 상류.
- 12) 동주(東州) : 철원의 옛이름.
- 13) 북관정(北寬亭) : 청원 북쪽에 있는 정자.
- 14) 삼각산(三角山) : 서울 북쪽에 있는 북한산 인수봉의 세 봉우리. 여기에서는 임금이 계신
- 15) 회양(滄陽) : 궁예왕 대궐터 근처 마을 이름. 중국 한나라 때의 마을 이름.
- 16) 급장유(汲長孺) : 중국 한나라 무제 때의 인물로서, 무제가 그를 회양(滄陽) 태수로 좌천시켰으나, 민정을 잘 살펴서 선정을 베풀었다고 함.
- 17) 풍악(風岳) : 가을 금강산의 별칭. 봄-금강, 여름-봉래, 가을-풍악, 겨울-개골.
- 18) 백천동(百千洞) : 장안사 동북쪽에 있는 옥경대와 명경대로 들어가는 골짜기 이름.
- 19) 만폭동(萬瀑洞) : 표훈사 위로부터 마하연 밑까지의 계곡 이름.
- 20) 금강대(金剛臺) : 표훈사 북쪽에 있는 석벽 이름.
- 21) 호(西湖) 옛 주인 : 중국 송나라때 서호에 숨어서 매화를 아내삼고 학을 아들삼아 살았다는 은사(隱士) 임포(林逋).
- 22) 소향로(小香爐) 대향로(大香爐) : 만폭동 입구에 솟아 있는 향로처럼 생긴 작고 큰 두 봉우리.
- 23) 정양사(正陽寺) : 표훈사 북쪽에 있는 절 이름.
- 24) 진혈대(噴歇臺) : 정양사 뒤에 있는 높은 대(臺).
- 25) 여산(廬山) 진면목 : 여산'은 중국 강서성에 있는 빼어난 경관을 지닌 산 이름. 소동파의 시구 '불식 여산진면목(不識廬山眞面目) 여산 진면목을 알지 못할레라'에서 인용한 말.
- 26) 망고대(望高臺) : 금강산 동쪽 봉우리의 하나.
- 27) 혈망봉((穴望峯) : 금강산 서쪽 봉우리의 하나.
- 28) 개심대(開心臺) : 정양사 위에 있는 臺
- 29) 중향성(衆香城) : 금강산 서쪽 봉우리의 하나.
- 30) 비로봉(毗盧峯) : 금강산 최고봉(1638m)
- 31) 동산(東山) 태산(泰山) : 모두 중국 산동성에 있는 산.
- 32) 노국(魯國) : 공자가 태어난 나라.
- 33) 노국(魯國)좁은 줄도~작단 말인가 : 맹자(孟子) 『진심장(盡心章)』에 “공자가 동산에 올라 노나

라를 작게 여기고,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게 여겼다(孔子曰 登東山而小魯 登泰山而小天下).”라는 구절이 있는데, 공자의 높은 정신적 경지[浩然之氣]를 흠모하고 있음을 노래한 것.

34) 원통(圓通)골 : 표훈사에서 북쪽으로 뚫린 골짜기 이름

35) 사자봉(獅子峯) : 화룡소 북쪽에 있는 봉우리.

36) 마하연(摩河衍) : 만폭동 상류의 가장 깊은 곳.

37) 묘길상(妙吉祥) : 마하연 동쪽 석벽으로 큰 미륵상을 새겨 놓았음.

38) 안문(雁門)재 : 마하연에서 유점사 넘어 내려가는 도중에 있는 고개 이름.

39) 불정대(佛頂臺) : 두운치(斗雲峙) 너머에 있는 고개 이름.

40) 유배온 신선~낫다는 말 못 하리라 : 이백의 벗 하지장이 “이백은 하늘에서 인간으로 귀양온 선인”이라 하였음. 이백은 여산의 폭포가 기이한 것을 보고 <망여산폭포(望廬山瀑布)>라는 시에서 그 모습을 “나는 듯이 흘러 곧추 삼천 척을 떨어지니 / 아마도 은하수가 구천에서 떨어지는 듯(飛流直下三千尺 疑是銀河落九天)”이라는 유명한 구절을 남겼음.

41) 산영루(山映樓) : 유점사 앞 계류를 가로질러 세워진 누각.

42) 명사(鳴沙) : 밝으면 쇠소리가 난다는 모래밭.

43) 금란굴(金欄窟) : 통천 바닷가 벼랑에 있는 해식동굴.

44) 총석정(叢石亭) : 통천 바닥사 바위벼랑에 위치한 정자로서, 관동팔경의 하나.

45) 백옥루(白玉樓) : 옥황상제가 거처한다는 누각.

46) 여섯 면 : 동서남북상하, 즉 천지의 6면.

47) 삼일포(三日浦) : 고성 북쪽에 있는 호수로서, 관동팔경의 하나.

48) 단서(丹書) : 삼일포 호수 안의 바위에 새겨진 ‘永郎徒南石行(영랑도남석행)’이라는 붉은 글씨.

49) 사선(四仙) : 신라 때의 네 국선(國仙), 즉 화랑(花郎)으로, 영랑 술랑 남랑 안상

50) 선유담(仙遊潭) : 간성 남쪽에 있는 연못.

51) 선유담(仙遊潭) : 간성 남쪽에 있는 호수.

52) 청간정(淸澗亭) : 간성 남쪽 해변에 위치한 정자로서, 관동팔경의 하나.

53) 만경대(萬景臺) : 청간정 근처 바닷가에 있는 거대한 바위의 대(臺).

54) 낙산시(落山寺) : 양양 동쪽 바닷가에 위치한 절로서, 관동팔경의 하나.

55) 의상대(義相臺) : 낙산사 안에 위치한 누대.

56) 지나가는 구름~머물까 두렵구나 : 애백의 시<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에 나오는 “모두 뜯구름이 되어 해를 가리니 / 장안마저 볼 수 없어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케 하네(總爲浮雲能蔽日 長安不見使人愁)”를 인용한 구절로서, 못 간신배들이 임금의 총명을 흐리게 할까 염려된다는 의미.

57) 시선(詩仙) : 이백을 말함.

58) 해타(咳唾) : 원쑤는 기침과 침. 훌륭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나 글. 여기서는 이백의 <등금릉봉황대>를 가르킴.

59) 천지간 웅장한 소식 : 이백이 <등금릉봉황대>에서 묘사한 일출의 웅장한 경관.

60) 현산(峴山) : 양양 북쪽의 고갯마루 산.

61) 경포(鏡浦) : 강릉 동쪽의 바닷가. 여기서는 바닷가에 이르기 직전에 있는 경포호(鏡浦湖)와 그 북쪽 언덕에 위치한 경포대(鏡浦臺)를 말함. 경포대는 관동팔경의 하나.

62) 강문교(江門橋) : 경포호수와 동해바다 사이에 놓인 다리.

- 63) 홍장고사(紅粧古事) : 강릉 기생 홍장에 대한 옛 일. 고려 우왕 때 강원감사 박신이 홍장을 사랑하다가 임기가 만료되어 떠나려 할 제, 부사 조운홀이 경포호수에 놀잇배를 갖추고 홍장을 선녀로 꾸며서 박신을 현혹하게 했다는 일화. 서거정의 『동인시화(東人詩話)』에 일화가 실려 전함.
- 64) 비옥가봉(比屋可封) : ‘즐비한 집들 모두 벼슬을 봉할 만하다’는 의미. 요순시대의 백성이 모두 착해서 집집마다 벼슬을 줄 만하였다는 것으로서, ‘태평성대’와 상통하는 말.
- 65) 진주관(眞珠館) : 삼척에 있는 객사.
- 66) 죽서루(竹西樓) : 진주관 서쪽에 위치한 누각으로서, 관동팔경의 하나.
- 67) 오십천(五十川) : 죽서루 아래를 흐르는 구불구불한 형상의 냇물.
- 68) 목멧(木覓) : 서울 남산의 본래 이름. 여기서는 임금이 계신 곳.
- 69) 망양정 :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구조의 정자이다.
- 70) 고래 : 파도를 은유함.
- 71) 부상(扶桑) : 해돋는 곳.
- 72) 계명성(啓明星) : 새벽별. 새벽별. 금성.
- 73) 백련화(白蓮花) : 흰 연꽃. 달의 다른 이름.
- 74) 유하주(流霞酒) : 신선이 마신다는 술.
- 75) 황정경(黃庭經) : 신선이 옥황상제 앞에서 읽는다는 경전.
- 76) 천산만락(千山萬落) : 온 산 온 마을. 온 세상.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